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날개 단 풍력발전 산업

WINDPOWER 2009를 통해 본 미국 풍력발전 시장

- 미국 시카고

- ▶ 전시회명 : Windpower Conference & Exhibition 2009
- ▶ 주관 : 미국 풍력에너지협회(AWEA)
- ▶ 전시회 면적 : 200,000 s/f
- ▶ 참가 규모 : GE Energy, Vestas 등 1,200여사,
- ▶ 참관객 약 13,000여명
- ▶ 국내 참가업체 :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유니슨 등 12개사
- ▶ 전시 면적 : 120,000s/f('08년) → 200,000s/f('09년)
- ▶ 참가 업체 수(방문자) : '08년 776(13,000명) → '09년 1,200(15,000명)
- ▶ 2008년에는 Trade Show지 선정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50대 전시회 중 하나로 뽑히기도 했음

풍력발전 산업이 미국의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5월4일부터 7일까지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개최된 WINDPOWER 2009 전시회에서는 풍력 산업이 과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에서 미국 주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시카고 가정용품 전시회나 SAE 자동차 부품 전시회 등의 전시회는 관람객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올해 풍력 전시회는 전시업체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넘쳐나는 관람객으로 큰 혼잡을 빚었다.

지난 5년간 연평균 3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미국 풍력산업은 지난해에 그간 단일 국가 중 최대 풍력산업 규모를 기록하고 있던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 시장으로 등극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오바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정책과 세계 혜택, 2030년까지 미국 전력 생산의 20%를 풍력으로 대체하려는 계획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 산업은 가장 빠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미국 풍력 산업 협회 Utility Program 담당 매니저인 Jeffrey E. Anthony씨는 올해 미국 풍력발전 산업은 약 20%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순회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 전문 전시회인 WINDPOWER 2009는 전년도에 비해 전시 면적과 참가자 수가 50%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풍력관련 대기업 대다수가 참가 하였고 유럽 국가 중 독일과 스페인, 아시아 국가 중 대만이 국가관을 구성하여 자국 산업과 기업 홍보를 위해 열을 올렸다.

풍력발전 시장의 주요 트렌드 - 대형화와 소형화의 동시 부상

이번 전시회에서 볼 수 있었던 풍력발전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는 풍력발전 용량의 대형화와 함께 일반 가정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소형 풍력발전기의 부상을 들 수 있다. 풍력발전소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올해 전시회에도 대형 풍력 터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유럽 기업들이 대형 제품을 선보였다. VESTAS의 경우 현재 3MW 급 그리고 GE Energy는 3.5MW 급 까지 상용화 하였으며 향후 5-6MW급 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수의 중견 기업은 소규모 도시나 농장, 공공 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풍력발전기를 선보였는데, 향후 확대될 수요에 대비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8년 미 소형 풍력 터빈 신규 설치용량은 전년 대비 무려 78% 증가한 17.3MW에 달하였으며, 풍력터빈 제조업체 설문 결과에 따르면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소형 풍력터빈 시장은 향후 5년 내 30배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 전시 기업 현황 및 특징

이번 전시회에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유니슨 등 한



1	3
2	4 5

1.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교체 모습
2.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풍력발전농장 (사진 : AWEA)
- 3~5. WINDPOWE 2009 전시회장 (사진 : KOTRA)

국의 주요 터빈 제조 기업은 물론, 케이엠(KM), 제이에스 케이블(JS Cable), 씨에스윈드(CS Wind Power) 등 주요 부품 및 전력기업 등도 참여해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한국 참가업체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참가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 미국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국기업으로는 최초로 작년부터 터빈 완제품을 처녀 전시한 유니슨은 물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도 금년 전시회에 최초로 해외 기술합작을 통해 개발한 1.65~2.5MW급 터빈 완제품 위주로 전시관을 구성하였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은 유니슨보다는 후발주자이나,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바이어 및 참관객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일부 전시기업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판매법인 등의 형태로 글로벌 기업에 단조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등 중소기업의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풍력산업의 경우 물류비 절감을 통한 적기 공급이 중요한 거래 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혜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터빈 및 부품 제조업체의 대미 직접 투자진출 확대는 필수 불가결하다.

한국 풍력 부품 기업들은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해 풍력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업체들과 상담을 통해 납품 및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였다. WINDPOWER 등의 전시회는 급부상하는 미국 풍력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내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텍사스 델러스에서 개최될 WINDPOWER 2010 전시회에서 한국 기업의 활약이 기대된다. [K](#)